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도박동기의 매개효과

김미숙, 윤지연, 강상준

서강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서강대학교



##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도박동기의 매개효과\*

김미숙\*\*

서강대학교

윤지연\*\*\*

이화여자대학교

강상준\*\*\*\*

서강대학교

**주제분류** 사회복지, 정신보건

**주제어** 경륜, 스포츠도박, 일상적 스트레스, 도박동기, 매개효과

**요약문** 본 연구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화상경륜 참여자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화상경륜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서울 시내 경륜·경정 장외지점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총 389부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경륜도박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에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연구함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 I. 서론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교신저자([yhmom77@naver.com](mailto:yhmom77@naver.com))

\*\*\*\*공동저자

우리나라는 경륜을 비롯한 사행산업(gambling industry)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도박중독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마, 경륜, 경정 종목의 경우, 공통적으로 본장 이용자보다 장외 이용자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경륜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이 36.9%인 반면 장외발매소는 44.6%를 기록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124).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경륜(競輪)은 사이클 경주로 진행되는 합법적인 도박성 게임의 하나이다. 경륜사업은 건전한 국민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한 공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륜 경주가 일어나는 본장 이외에도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장외발매소에서 화상경륜이 스포츠도박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도박이란 스포츠와 도박의 합성어로서 스포츠의 긍정적 의미와 도박의 부정적 의미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스포츠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내기 참여자들이 도박을 즐겁고 사교적이며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레저 활동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베팅의 오락적 측면을 강조한다(Neal, 2006: 291; 박세준·이영진, 2016: 96). 도박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레저스포츠 종류에는 경륜, 경정, 경마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합법적인 도박은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한다(이재목, 2015: 103-104). 도박의 높은 유병률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히 스포츠와 도박의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박,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Coman, et al., 1997: 235).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에서 도박에 참여하는데(Jacobs, 1987: 169), 생활 속의 스트레스는 사교동기, 회피동기, 접근성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Thomas, et al., 2011: 2), 회피동기는 스트레스와 문제성 도박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Thomas, et al, 2011: 2; 정다희 외, 2018: 328). 본 연구 대상인 화상경륜은 스포츠도박의 일종으로서 긍정적인 스포츠 동기, 내기도박 동기, 중독을 이끄는 부정적 동기 등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박동기의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간에 여러 도박동기들의 매개 역할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화상경륜 스포츠도박의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경륜도박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박동기

사람들은 날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 좀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기로 도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인데, 도박행동은 유희, 흥분, 회피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최우림, 2007: 8).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은 국내외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Jacobs(1986: 15)는 중독이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장기간에 걸쳐 획득된 의존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호주의 Addiction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도박자들에게 스트레스 감소가 중요한 동기이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한 도박행동이 문제도박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Coman, et al., 1997: 235). Thomas et al(2011: 2)에 의하면, 전자도박자들의 삶의 스트레스는 회피동기에 정적 영향을 주며, 이는 도박빈도와 도박문제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사교동기에 정적 영향을 주지만, 이는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스트레스는 접근 동기에 영향을 주며, 이는 도박빈도와 도박문제에 영향을 준다.

국내연구로는 박은영(2016: 110)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스트레스는 회피, 사교, 일상탈출 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금전동기는 일상탈출, 흥분, 사교, 회피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은영의 연구에서는 경마도박의 회피동기, 일상탈출동기, 사교동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근거로 경마의 건전한 레저스포츠 성격을 강조하였다(박은영, 2016: 113). 그러나 위 연구는 금전동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며, 여러 동기들 중에서 금전동기의 부정적 영향력이 큰 점에 대해서 덜 강조함으로써 편향된 시각을 견지하였다. 또한 정다희 외(2018: 328)는 회피동기가 생활 스트레스와 문제성 도박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여러 동기 중에서 회피동기만을 검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를 함께 살펴보고 도박동기들의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아서, 본 절에서는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문제성도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양정남 외, 201: 202),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장정임 외, 2014: 111; 장정임 외, 2015: 370), 병적 도박의 원인이 되거나 도박행동을 지속하게 하고(신영철·최삼욱, 2006: 89), 스트레스의 심각도가 높은 집단에서 도박횟수가 더 많이 나타나며(최우림, 2007: 3), 병적 도박자들은 문제도박자들이나 문제가 없는 도박자들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훈 외, 2007: 175). 이밖에도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신영철, 2005: 75).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3. 도박동기와 경륜도박행동

오래전부터 도박행동 연구가들은 도박동기를 사교동기, 유희동기, 회피동기, 흥분동기, 금전동기 등으로 분류하고 도박동기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왔다. 먼저, 사교동기는 친목이나 여가선용을 함께 하기 위해 가벼운 도박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희동기는 도박판의 손실 결과에 상관없이 지나친 역기능을 수반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사교성 도박이나 유희성 도박은 사교나 즐거움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특징이 있다(Custer, 1984; 이흥표, 2002: 9 재인용). 그러나 사교동기와 유희동기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교동기는 직접 건강한 도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도박을 심각하게 유발하지는 않는 반면에, 유희동기는 직접적으로는 금전동기와 도박 심각도를 경감시키지만, 간접적으로는 회피동기와 흥분동기를 고양시켜 금전동기와 도박 심각도를 악화시키는 양면성이 있다(이흥표, 2004: 564-565).

회피동기는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흥분동기는 강렬한 자극과 감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김영준, 2009: 20). 회피동기와 흥분동기는 도박 심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금전동기를 매개하여 도박의 심각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박에는 다른 중독과 구별되는 고유한 동기가 있는데 바로 돈에 대한 열망으로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동기가 특징이다(Herscovitch, 1999; 이흥표, 2002: 32 재인용). 카지노 도박자의 도박동기는 금전동기와 비금전동기 2개로 구분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카지노 도박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금전동기가 너무 강하여 여타 동기들의 차별성이 희석된 것으로 추론되었다(이태원, 2004: 194). 한편, Flack과 Morris(2015: 15)는 도박동기를 금전동기와 정서동기(흥분, 회피, 자아)로 나누어 지역사회 일반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전동기는 문제도박을 예측하는 주요 동기가 아니었고 정서동기는 도박문제를 예측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일반인에게서는 흥분이나 회피와 같은 정서동기가 도박의 주요 동기인 반면, 경륜·경마에서는 금전동기가 주요 동기이고 이어서 흥분동기와 회피동기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카지노 도박은 경륜·경마와 같은 스포츠 요소가 줄어들고 베팅 요소가 커지면서 금전과 비금전의 두 가지 동기로 분류되고, 병적 도박자일수록 금전동기가 우세하다. 이처럼 경륜, 경마, 카지노 등 도박의 종류에 따라 도박동기에서 미묘한 차이들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경륜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25년이 되었고 전국에 장외지점 20개가 설치되어 화상경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에 여러 도박동기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상경륜의 스포츠 특성인 사교동기, 고유의 도박특성인 금전동기, 중독을 이끄는 부정적 특성인 회피동기를 중심으로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에 도박동기가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직업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경륜·경정 장외지점을 방문한 20세 이상 성인 도박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자료수집은 2018년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은 장외발매소 방문객 중에 설문에 협조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에 하나인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설문조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이용자의 편향성 및 직접 설문조사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시점을 평일과 휴일에 걸쳐 하였으며, 연구설계와 관련된 설문지의 제작과 조사에 있어서 전문리서치 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473부 중에서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 84개를 제외한 총 38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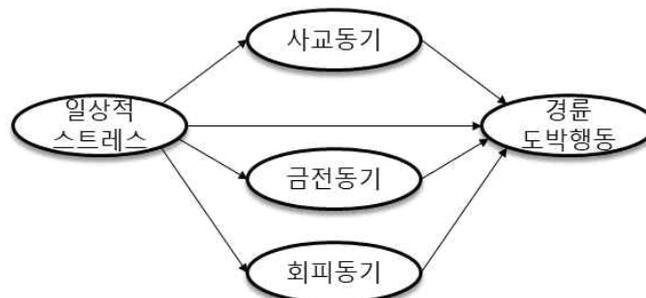
#### 2. 연구모형

연구의 기본 가설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륜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금전동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 1)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eLongis et al(1988)이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DHS)를 김정희(1995)가 번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을 기반으로 박은영(2016)이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스트레스(3문항), 직무스트레스(3문항), 경제스트레스(3문항), 자신스트레스(2문항), 외부환경스트레스(3문항), 가정생활스트레스(2문항)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 전혀 없음(1)” 부터 “스트레스 매우 많음(4)” 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보다 전반적인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934로 나타났다.

#### 2) 도박동기

화상경륜의 도박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rail과 James(2001)의 스포츠 관람동기와 이흥표(2004)의 도박동기, 박세준과 이영진(2014)의 경마 체험동기를 기반으로 박은영(2016: 106)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탈출동기(3문항), 흥분동기(5문항), 회피동기(3문항), 사교동기(3문항), 금전동기(3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5가지 하위요인 중에 사교동기(3문항), 금전동기(3문항), 회피동기(3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9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44, .796, .783으로 나타났다.

#### 3) 경륜도박행동

스포츠도박 행동을 측정하는 주요 척도로는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31문항이 있다. 이 중에서 도박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따로 구성된 9개의 진단문항을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라고 부른다. CPGI는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도박행동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자의 현재 도박 유병률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륜도박행동 신뢰도 계수는 .877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사고·금전·회피동기 및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고·금전·회피동기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모형 접근법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1〉 화상경륜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89)

(단위: 명, %)

구분		빈도 (N)	비율 (%)	구분		빈도 (N)	비율 (%)	
성 별	남	341	87.7	월 평 균 수 입	100만원 미만	62	15.9	
	여	48	12.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7	30.1	
연 령 대	30대 이하	18	4.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9	25.4	
	40대	58	14.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7	14.7	
	50대	158	40.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2	8.2	
	60대	119	30.5		500만원 이상	20	5.1	
	70대 이상	36	9.5		무응답	2	0.5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67	17.2		직 업	자영업	132	33.9
	고졸	229	58.9			회사원	82	21.1
	대졸	85	21.9			일용직	94	24.2
	대학원이상	8	2.1	학생		2	0.5	
				무직		62	15.9	
			기타	12		3.1		
			주부	3		0.8		
			무응답	2	0.5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7.7%, 여자가 12.3%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50대(40.7%)와 60대(30.5%)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58.9%)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대졸 이하(21.9%)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30.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25.4%), 100만원 미만(15.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33.9%), 일용직(24.2%), 무직(15.9%)이 74%를 차지했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50~60대 고졸 남성으로서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경륜(황의룡·함경수, 2006: 63), 경륜·경정 및 화상 경륜·경정(김경훈·배정규, 2007: 372), 화상경륜 연구들(성준모·김정진, 2014: 148)과 비교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30~40대 또는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다가 점점 50~60대로 이동하였다. 이는 경륜, 경정, 화상경륜, 화상경정 종목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참여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해석된다. 2018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서 월평균소득이 200~300만원대가 다수를 차지한 것에 비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24), 본 연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100~200만원대가 다수를 차지하여 다소 낮게 분포되었다. 그밖에 교육수준과 직업분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본 설문조사는 편의표본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모집단을 잘 대변하였다고 판단된다.

## 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일상적 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11(SD=.65)이었다. 사교동기는 점수가 높으면 사교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평균은 5점 만점에 2.51(SD=.87)이었다. 금전동기는 점수가 높으면 금전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평균은 5점 만점에 2.78(SD=.89)이었다. 회피동기는 점수가 높으면 회피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평균은 5점 만점에 2.76(SD=.82)이었다. 동기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금전동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회피동기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사교동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륜도박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행동이 잦은 것을 의미하며 평균은 5점 만점에 2.83(SD=.74)이었다. 이는 중간 이상의 값으로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기준치에 적합하므로 정규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상적 스트레스	389	2.11	.65	.005	-.489
사교동기	389	2.51	.87	.466	-.147
금전동기	389	2.78	.89	.122	-.004
회피동기	389	2.76	.82	.124	-.315
경륜도박행동	389	2.83	.74	-.101	-.039

### 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p < .01$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이었다. 여러 변수들 중에 금전동기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547\*\*로 가장 높았고, 사교동기와 회피동기(.542\*\*), 사교동기와 금전동기(.529\*\*)가 뒤를 이었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변수명	일상적 스트레스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	경륜도박행동
일상적 스트레스	1.000				
사교동기	.326**	1.000			
금전동기	.385**	.529**	1.000		
회피동기	.331**	.542**	.519**	1.000	
경륜도박행동	.485**	.309**	.547**	.424**	1.000

N=389. \*\* $p < .01$ .

### 4. 매개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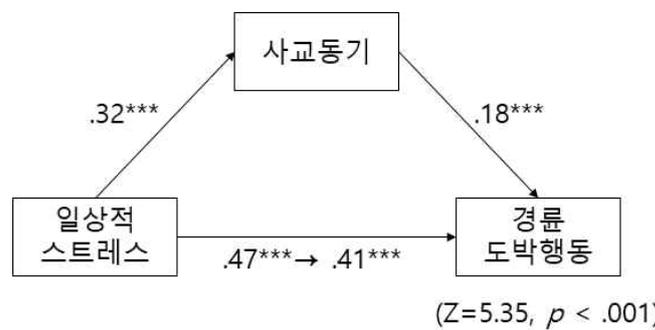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가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모형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모델 1단계에서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경륜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 2단계에서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모델 3단계에서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박동기를 함께 투입하여 경륜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상경륜 참여자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4>와 <그림 2>와 같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경륜도박행동( $\beta = .47, p < .001$ )과 매개변인인 사교동기( $\beta = .32,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교동기를 함께 투입한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경륜도박행동( $\beta = .41, p < .001$ )과 사교동기( $\beta = .18, p < .001$ )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화상경륜 참여자의 사교동기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5.35, p < .001$ ). 모델 1, 모델 2, 모델 3의 설명력은 각각 31.0%, 15.4%, 33.7%이었다.

〈표 4〉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 사교동기의 매개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경륜도박행동		사교동기		경륜도박행동	
	B(S.E.)	$\beta$	B(S.E.)	$\beta$	B(S.E.)	$\beta$
일상적 스트레스	.535(.05)	.47***	.432(.07)	.32***	.469(.05)	.41***
사교동기					.151(.04)	.18***
$R^2$	.310		.154		.337	

통제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직업.  
N=389.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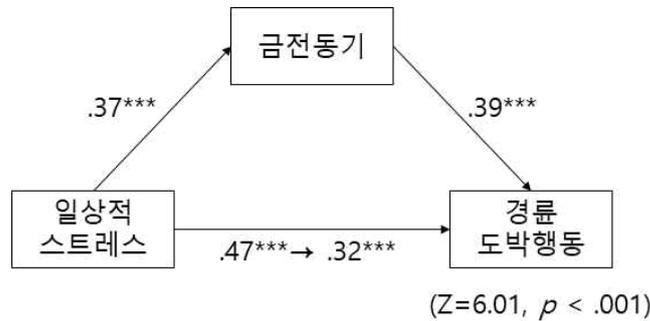
〈그림2〉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 사교동기의 매개효과 (\*\*p < .001).

화상경륜 참여자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금전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5〉와 〈그림 3〉과 같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종속 변인인 경륜도박행동( $\beta = .47, p < .001$ )과 매개변인인 금전동기( $\beta = .37,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금전동기를 함께 투입한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경륜도박행동( $\beta = .32, p < .001$ )과 금전동기( $\beta = .39, p < .001$ )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화상경륜 참여자의 금전동기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6.01, p < .001$ ). 모델 1, 모델 2, 모델 3의 설명력은 각각 31.0%, 19.0%, 43.6%이었다.

〈표 5〉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 금전동기의 매개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경륜도박행동		금전동기		경륜도박행동	
	B(S.E.)	$\beta$	B(S.E.)	$\beta$	B(S.E.)	$\beta$
일상적 스트레스	.535(.05)	.47***	.508(.07)	.37***	.367(.051)	.32***
금전동기					.330(.036)	.39***
$R^2$	.310		.190		.436	

통제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직업.  
N=389. \*\*\*p < .001.



<그림 3>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 금전동기의 매개효과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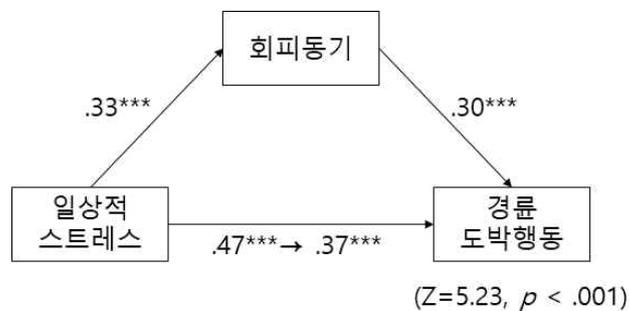
화상경륜 참여자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회피동기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6>과 <그림 4>와 같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경륜도박행동( $\beta = .47, p < .001$ )과 매개변인인 회피동기( $\beta = .33,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회피동기를 함께 투입한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경륜도박행동( $\beta = .37, p < .001$ )과 회피동기( $\beta = .30, p < .001$ )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화상경륜 참여자의 회피동기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5.23, p < .001$ ). 모델 1, 모델 2, 모델 3의 설명력은 각각 31.0%, 13.8%, 38.5%이었다.

<표 6>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경륜도박행동		회피동기		경륜도박행동	
	B(S.E.)	$\beta$	B(S.E.)	$\beta$	B(S.E.)	$\beta$
일상적 스트레스	.535(.05)	.47***	.420(.07)	.33***	.423(.05)	.37***
회피동기					.265(.04)	.30***
$R^2$	.310		.138		.385	

통제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직업.

N=389. \*\*\*p < .001.



<그림 4>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화상경륜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50-60대 남성으로 저소득층이거나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사행산업 이용자 실태보고에서는 도박중독에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데, 성별은 남자, 연령은 50대, 직업은 무직, 일반 작업직, 자영업 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다고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성준모·김정진, 2014: 143 재인용). 흥계희와 이동준(2005: 40)은 학력과 월수입이 높은 경륜 참여자일수록 긴장해소나 유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반면, 학력이 낮거나 월수입이 낮을수록 여가의 순기능을 즐기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화상경륜 참여자들은 순수한 스포츠를 즐기기보다는 도박중독에 취약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둘째,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 경륜도박행동 간에 모든 변수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 경륜도박행동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는 경륜도박행동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 스트레스, 도박동기 및 경륜도박행동 간에 긴밀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경륜도박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화상경륜 참여자들이 일상적 무료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륜도박행동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본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화상경륜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은퇴 후 노년기를 살아가는 50-60대 저소득 남성들이 일상의 무료함이나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변인들 중에서 금전동기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547\*\*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도박의 동기에서 금전동기가 주를 이루며, 금전동기가 높을수록 도박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이홍표, 2002; 이태원, 2004; 박정열 외, 2009). 여러 변인들 가운데 금전동기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화상경륜에서도 금전베팅의 성격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박동기들 중에는 사교동기와 회피동기 간의 상관관계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박동기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여러 동기들이 결합하여 동시적으로 작용하며, 여러 동기들 중에 흥분동기, 회피동기, 금전동기 간에 상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이홍표, 2003: 176). 그동안 사교동기는 금전동기나 도박의 심각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한 도박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홍표, 2003: 176). 그러나 본 연구결과 사교동기와 회피동기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사교동기와 금전동기 간의 상관관계(.529\*\*), 금전동기와 회피동기 간의 상관관계(.5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사교동기도 금전동기와 회피동기와 같은 부정적인 동기와 결합하여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박동기의 역할을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사교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교동기가 직접 경륜도박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동기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사교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경륜의 레저스포츠 성격을 강조하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한다(박은영, 2016: 113).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사교동기가 친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지나친 도박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면서(이홍표, 2003: 176),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지만(박은영, 2016), 이는 (경마)경기가 직접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전동기, 회피동기와 더불어 사교동기도 도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교동기와 회피동기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교동기는 회피동기와 연동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교동기도 다른 부정적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경륜도박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재해석이 필요하다.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금전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금전동기가 경륜도박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금전동기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금전동기는 여러 동기들 중에서 도박문제의 심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홍표, 2002: 74; 박정열 외, 2009: 130).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회피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회피동기가 경륜도박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피동기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회피동기가 스트레스와 문제성 도박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정다희 외(2018: 328)의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한 선행 연구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가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모형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 여러 도박동기들의 매개효과를 비교하려면 매개변인을 투입하기 전인 1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인의 표준화계수가 투입 후인 3단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인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 변화량으로 비교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투입으로 인한 독립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 $\beta$ )차이는 금전동기(.47\*\*\*  $\rightarrow$  .32\*\*\*), 회피동기(.47\*\*\*  $\rightarrow$  .37\*\*\*), 사교동기(.47\*\*\*  $\rightarrow$  .41\*\*\*)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화상경륜 참여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경륜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 금전동기, 회피동기가 부분매개 하는 것을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화상경륜이 스포츠의 특성, 도박의 특성, 중독의 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사교동기가 도박 심각도에는 영향이 없는 긍정적 동기로 알려져 왔으나(이흥표, 2003: 176), 이는 직접 경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의 본 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국한된 연구가 대다수이다. 반면에, 실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직 화상 관람만으로 진행되는 화상경륜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전동기와 회피동기가 뿐만 아니라 사교동기도 경륜도박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도박동기들이 도박행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일 지점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정 시점에만 국한된 데이터 수집이기에 전반적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륜 장외 발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장 이용자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경륜참여자와 화상경륜 참여자를 함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도박동기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하지만, 도박문제가 심각해지면 도박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신영철, 2005: 75). 따라서 종단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경훈·배정규, 2007, 「경륜 및 경정 도박성 게임자들의 게임 이용실태, 주관적 삶의 질,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권 2호, 한국심리학회.
- 김영준, 2009, 「스포츠 도박동기와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8권 1호, 한국체육과학회.
- 김영훈·최삼욱·신영철, 2007, 「병적 도박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우울증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6권 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권 1호, 한국심리학회.
- 박세준·이영진, 2014, 「경마공원 방문자의 체험이 경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8권 4호, 한국관광학회.
- 박은영, 2016, 「관람스포츠로서 경마경험이 일상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0권 1호, 관광경영학회.
- 박정열·김윤영·유연옥·허태균, 2009,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성격, 동기, 인지, 사회적 관계 및 여가 만족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7권 2호, 여가문화학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성준모·김정진, 2014,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건사회연구』, 34권 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철, 2005,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스트레스연구』, 13권 2호, 대한스트레스학회.
- 신영철·최삼욱, 2006,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병적 도박」, 『대한불안장애학회지』, 2권 2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 양정남·최은정·김화선, 2011, 「일반성인의 문제성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이재목, 2015, 「스포츠 레저와 스포츠 도박의 경계 - 경륜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18권 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이태원, 2004,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홍표, 2004, 「5요인 도박동기의 검증과 도박동기가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권 3호, 한국심리학회.
- 이홍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권 1호, 한국건강심리학회.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정임·윤인노·김성봉, 2014,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권 11호, 한국청소년학회.
- 장정임·현지현·김성봉,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권 12호, 한국청소년학회.
- 정다희·신현지·김교현, 2018, 「스트레스, 회피동기, 마음챙김이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 최우림, 2007, 『스트레스 및 대처가 도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도박 위험성과 손실만회 행동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계희 · 이동준, 2005, 「경륜의 도박동기와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권 5호, 한국스포츠리서치.
- 황의룡 · 함경수, 2006, 「경륜 참여자의 도박동기와 도박중독성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5권 4호, 한국체육과학회.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 Coman, G., Burrows, G., and Evans, B., 1997, “Stress and anxiety as factors in the onset of problem gambling: Implications for treatment” , *Stress Medicine*, Vol 13.
- DeLongis, A., Folkman, S., and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3.
- Ferris, J., and Wynne, H.,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Final Report*. Ottawa, ON: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Flack, M., and Morris, M., 2015, “Problem gambling: One for the money...?” ,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Vol 31 No. 4.
- Jacobs, D. F., 1986,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s: A new theoretical model” ,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Vol 2 No. 1.
- Jacobs, D. F., 1987,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s: Application to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lanning for pathological gamblers” , In T. Galski (Ed.), *The Handbook of Pathological Gambling*, Springfield, IL, England: Charles C. Thomas.
- Neal, M., 2006, “ ‘I lose, but that’ s not the point’ : Situated economic and social rationalities in horserace gambling” , *Leisure Studies*, Vol 24 No. 3.
- Thomas, A. C., Allen, F. L., Phillips, J., and Karantzas, G., 2011, “Gaming machine addiction: The role of avoidance, accessibility and social support” ,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 25 No. 4.
- Trail, G., and James, J., 2001, “The motivation scale for sport consumption: Assessment of the scale’ s psychometric properties” ,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 24 No. 1.

## The Mediating Effect of Gambling Mo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Gambling Behavior of Video Bicycle Race Gamblers

Kim, Mee Sook  
(Sogang University)  
Yun, Ji Yeon  
(Ewha University)  
Kang, Sangjun  
(Sogang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mental health

**Key words** Bicycle Racing, Sports Gambling, Daily Stress, Gambling Motivation, Mediating Effect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on sports betting of video bicycle race gamblers by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s of gambling motives (socialization, monetary, and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video bicycle race gambling. Using the non-probabilit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visitors of the video bicycle race gambling arena in Seoul area. A total of 389 copies of the collected data, excluding the non-response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Daily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ization motive, monetary motive, and avoidance motive. Each of socialization motive, monetary motive, and avoidance motiv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video bicycle gambling. Daily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video bicycle gambling. It was found that socialization motive, monetary motive, and avoidance motive play a role of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video bicycle gambling.

접 수 일 : 2019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5월 1일